

광주·전남 가계부채 타 지역 대비 낮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증가율 다소 빨라 가계부채 잔액 광주 24.9조·전남 22.5조원 “취약 요인 선제적 대응 정책 방안 마련을”

광주·전남 지역 가계부채는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다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정서림 과장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와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타 지역 대비 낮은 편인 반면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지

역 대비 증가폭이 다소 큰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말 현재 광주·전남 지역 가계부채 잔액은 47.3조 원으로, 가계부채 전체(1036.0조 원)의 약 4.6%를 차지했다.
광주 지역의 가계부채 규모는 24.9조 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울산(20.6조 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22.5조 원으로 9개 도 중 제주·강원·충북 다음 순이다.

광주 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4.5%로 전국 평균(56.3%) 대비 높은 편이었지만,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인천 다음으로 낮았다.
전남 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9.7%로, 9개 도 중 충남 지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점검 결과 중·저신용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신용등급별 부도 확률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손실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주택시장의 경우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수급 여건이 양호한 편이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부동산 가격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타 지역 대비 상

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광주전남본부는 향후 금리 정상화 시기가 다가 올 때를 대비해 가계부채의 잠재적 취약 요인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확립을 통해 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차주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자산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등과 관련된 상담 기능을 활성화해 취약 차주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만기 다변화 등 대출 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 분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니클로 배송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달도 안내도 안한다”

택배·마트노조, 'NO일본' 동참... “불매운동 참여 당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유통·불류업 노동조합들이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 국민적 저항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일본 SPA브랜드인 유니클로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알렸고, 마트 노동자들은 매장 내 일본제품 안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며 유니클로 배송 거부 등 범국민적 반일 불매에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오래 못 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 투쟁을 꺾으려고 디자인에 전범기인 육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대표적 일본기업”이라며 “유니클로 배송 거부 인증샷을 시작으로 실제 거부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노조를 해울 수 있었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유통·불류업 노동조합들이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 국민적 저항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일본 SPA브랜드인 유니클로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알렸고, 마트 노동자들은 매장 내 일본제품 안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오래 못 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 투쟁을 꺾으려고 디자인에 전범기인 육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대표적 일본기업”이라며 “유니클로 배송 거부 인증샷을 시작으로 실제 거부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노조를 해울 수 있었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택배 노동자들은 유니클로 배송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유니클로 브랜드가 붙어 있는 박스에 ‘택배노동자들은 유니클로를 배달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택배노동자들의 선언에 앞서 대형마트 3사 노동자들도 이날 매장 내 일본제품 안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지부 마트노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당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산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환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가 맞서 대형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롯데마트 원주점 직원 김모씨는 “일본 경제보복 이후 한 주에 400여개 팔리던 일본산 아사히 맥주가 50개 정도로 판매량이 줄었고, 일본산 맥주들도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런 (안내 중단) 선언에 동참해 일본제품들의 판매금지 등 대국민 정서에 맞는 행동들을 선제적으로 단행,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님을 꼭 꼭 알려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안공항 이용객이 뽑은 개선점 1위는 면세쇼핑”

제주항공, 무안공항 이용 여행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무안국제공항 이용 여행객 10명 중 3명은 공항 활성화를 위해 ‘면세쇼핑’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6월24일부터 30일까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제주항공 고객 6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응답자의 55.8%는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할 부분은 ‘면세쇼핑’ (29.7%)과 ‘편의시설 확충’ (25.7%), ‘대중교통’ (14.3%)을 꼽았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출국장면 세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판매 품목

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취항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족한무안국제공항의 면세쇼핑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화장품과 전자제품, 패션, 건강식품 등 200여 개의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내 면세점을 무안기점 국제선(도쿄·후쿠오카제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통수단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73.3%가 무안국제공항에 올 때 자가용을 이용했으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이용’은 20.1%였다. 1800여

대 무료주차 가능하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 등이 자가용 이용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4.3%가 ‘대중교통’을 꼽은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고려 요소가 ‘거리가 가까워서’ (78.7%)였던 것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확충 등 공항 접근성 개선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 (58.7%)이 처음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했으며, ‘2번째’ (24.4%)와 ‘4번째’ (9.1%)가 뒤를 이었다.

휴가철 무안공항 8월7일 가장 붐빌 듯...승객 4900여 명 예상

특별수송기간 6만8422명 이용...전년비 57.1% 늘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오는 8월7일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따르면 올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국내선 1만518명, 국제선 5만7904명

등 모두 6만842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57.1% 늘어난 수치이다.
무안공항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5개국 7개 노선(일본 오사카/삿포로,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나트랑/달랏, 필리핀 세부, 말레이시아 코타

키나발루)의 부정기편을 추가로 운항한다. 특히 오는 8월7일에는 공항에 달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공항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25일부터 오는 8월11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책본부에서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대비해



상주기관 및 업체와 합동으로 공항시설 및 장비의 특별점검을 일제히 실시했다.
정삼국 지사장은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여객정서 혼잡을 해소하고 편리한 탑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